

# 국제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순서
1. 커져가는 세계경제속에 숨겨져있는, 농촌진흥정책
2. 물과 공해 문제
3. 관광
4. 가금산업
5. 영구적으로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식목
6. 수산자원 확보로 농어촌경제 육성
7. 시정되어야 할 교통행정
8. 외화제도 개현사항
9. 산업화로 갈 수 있는 농군

김 병 식

- 재미동포(캘리포니아 거주)
- 미국 B & H TRADING CO. 대표
- 한국 은조상사 기술 자문위원

## 7. 시정되어야 될 교통행정

미국에서와 같이 매년 개편되어진 지도 한장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정확한 약도는, 지형적인 도시구성 및 역사의 흐름에 따라 시행정 도시계획의 변화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역 각각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행정구역이 정확히 도로상에 표시돼 있어야 될 줄 안다. 시가 확장되고 도시계획이 설계되면 우

선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여 도로명이 있어 도로상에 표지가 부착되어야 될 것인즉, 명목되어질 소로의 도로명은 커녕 대로마저 지명표지가 없어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인구밀도에 따른 백년전의 도시와 다가올 백년후의 도시양상을 생각지 않고 도시계획이 시행된다면 훗날 공해 덩어리로 남게될 소지가 너무 크다고 본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바둑판 같은 Block시가

체제를 갖추어 늘어나는 차의 주차 문제라든가 좌회전 은행, 또한 지도 편찬을 위한 영구적인 도시 구성체를 갖출 수 있을때, 선진계열의 도시로 세계화를 찾고 있는 우리나라에 명목을 이어가리라 믿는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산업성 및 군사적 도로를 기준하여 설계된 것으로 복합적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의 명맥을 이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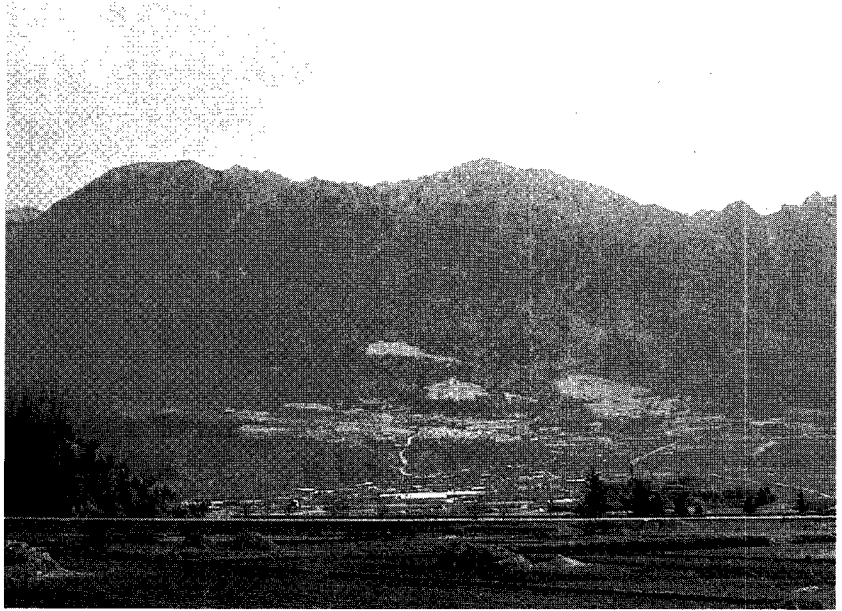
고속도로인 만큼, 농촌이라든가 소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의 간격차를 줄여, 농촌경제에 활성화 교통수단 역할까지 담당했으면 한다.

농촌에 이어지는 농촌산업을 꺾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약위주로 살고있는 농군들에 시간과 고속도로비 및 개스의 절감을 위한 참신한 교통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선다.

또한 이러한 국로가 완성되면 산간지형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지형에 맞는 교통수단이 될 것인즉, 통일을 앞둔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면 한다.

## 8. 외환제도 개헌시행

외환제도 개헌 시행은 세계 경기변동과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점지할 수 없는 모든 여건변



화에 대해 충분한 대책과 연구가 뒤따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시행되는 해외여행경비, 유학생체제비, 그리고 외환자유화 제도에 따른 개방정책은 시기이른 조치로서 외화낭비가 기하급수로 증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자유화 세계여행 개방정책에 이어 곱으로 증폭된 경비는 세계화로 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신의 부를 만끽하면서 쓰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때로는 과장되게 추태스러운 이질현상을 보이는 여행객 및 유학생이 있어 주목을 끈다.

LA베버리힐의 로테오가에 자리잡은 유명백화점들의 최상급 고객이 우리나라 관광객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인상을 받을 때마다 권장하고 싶은 조언보다는 도박인이 모이는 라스베가스의 각 도박장에서도 우리 관광객 및 학생들의 유래는 특별하다.

과소비 풍조는 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밤마다 많은 그룹의 학생들이 검은돈을 쓰고 다니는 것을 볼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참된 유학생 및 착실히 살려는 교포에게는 몹시 못마땅한 인상을 주고 있다.

개인이 축적해 놓은 부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쓰여지는 돈은 우리 국민에게 다시 유통되어질 수 없는 우리 국민의 돈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계몽이 앞섰으면 한다.

그들에게 쓰여지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쇼핑은 일반 선의의 관광객으로서의 상상을 초월한 액수이다.

그러한 체제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는 그 어느 누가 치유할 수 있는 발언을 하겠는가

1960년도 초반에 미국 유학생으로 갔던 우리들은 접시담이 수입으로 등록금을 비롯한 생활까지 책임지려는 의지로 살았던 그 세대와의 격차는 형용할 수 없는 양상을 가진 변화이다. 지나친 과소비 체제로 정신교육이 무너질까 염려된다.

해외 부동산 및 금융투자는 모름지기 국제적 차원에서 장려되어져 저개발 국가에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임업, 농업, 수산업, 광업 및 석유산업을 위한 장기임대계약 혹은 매입으로 생산품을 영업 혹은 자체시장 개발을 꾀해 이민 정책까지 유도한다면 백년지계를 내다본 국가 시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소규모 해외투자도 세계에 분포되었다고는 보나 좀더 확대해서 과감한 부동산 투자를 장려해 나갈때 어제의 한국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다. 이웃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자행해서 그들의 국익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금도 늦지 않

다.

한국 이민사는 19세기 초반기부터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경지로 이민을 시작해, 그후 많은 유학생들의 체류, 연이은 가족 초청 및 간접이민을 이룬것이 현 미국의 한인사로 볼 수 있다.

또한 남미의 브라질, 페루,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 분포되어 있는 해외교포를 비롯 전세계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은 환전할 수 없는 Human Estate(인간 동산)의 뿌리가 되어 모국발전에 기여될 것이다. 이러한 해외이민 사회와 상호연관성 있는 장기안목의 부동산 투자는 바람직하다.

시급한 외환개방정책으로 경제물락을 초래하게돼 자본투자자를 비롯,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멕시코는 미국을 비롯 서구제국들이 원조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제공물이 있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재투입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달리 유망투자 담보물이 잠재되어 있으나 교육수준의 격차가 심해 빈부의 차가 극심하여 불안정한 정치, 경제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우리 기업이 동참해 있는 Tijuana에서 Elpaso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국경을 접해 있고, 밑으로는 혼드라, 구아테말라,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로 이어진 상업적 지리조건, 세계어장을 이룰 수 있는 해양, 잠재되어 있는 석유산업의 전망, 세계 관광 요충지의 해변, 그리고 저임금으로 노동력 확보 가능성 등은 그들의 충분한 담보물이 될 것인 즉, 장기적인 부동산 확보를 위한 투자성 전망은 밝다고 본다. 특히 어업분야와 관광분야의 발전잠재성을 감안해, 미개발 지역인 해안지역에 역점을 둔 투자성은 밝다고

본다.

본인은 미국에서 무역학과 부동산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은 후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증식을 위해 멕시코와 많은 인연을 맺은바 우리 정부가 정치, 경제 양면에 좀더 적극적인 교류를 맺어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정부차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싶



다. 또한 협소한 경쟁력 투자에서 장기적인 이민투자로 눈을 뜨는 것이 개도국에 놓인 우리로서 자본운용 방법중에 하나일 것이다.

외환 자유화정책은 접지할 수 없는 우리 기업의 운명이 달려있는 점으로 가부를 논할 수 없다고 본다. 허나, 자기의 치부만을 위주로 개인의 부를 분산키 위해 도피되어지는 많은 외화 유출은 흔히 있는 문제로 조심스럽게 다뤄졌으면 한다.

## 9. 산업화로 갈 수 있는 농군

농촌경제 및 농축산인들의 위기설은, UR정책이 수립된 때부터 염려된 문제로, 이러한 위기책을 국가 모체에게만 부담을 갖게하지 말고 농촌인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씨족체제, 마을체제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제를 형성해야 된다고 본다.

농민 개개인이 소유한 농토의 규모와 자본의

능력은 협소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공동체 운영으로 공동소득을 위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아무리 좋은 경영방침과 구상이 있다해도 개인농가가 소화할 수 있는 경영안목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줄 안다. 대부분의 농경지는 층계 형태로 토지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내려온 순수한 고유문명을 간직한 토향적인 유물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형 형세를 합쳐 유희농토공간 활용으로 공동농법제도를 도입해 합작개발을 시도한다면, 관광수입원을 올릴 수 있는 사격장 및 핑수렵에 이어지는 메추리 및 꿩 사육, 그리고 수출 및 국내소비재로 시장성이 높은 담수어 양식에 이어 관광유치를 위한 유료양어장, 경제성 식목을 위한 토향의 맛을 갖게한 질적 상품개발, 시장성이 높은 토속적인 산채 및 농산물 등등, 제 분야에 함께 기여했을때 노동력 활성화와 농경상품화 판매망을 통해 산업화의 발판을 다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근거로 1년 농산물 수확을 통해 얻은 총괄적인 개인소득이 몇천만이던 것이 공동협력체제를 형성해서 얻은 연 개인소득이 기하급수로 영구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농어촌 경제가 그리 어둡다고만 할 수 없다고 본다.

본인은 미국 유학생살을 마치고 30년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자연을 동경하게된 동기로 세계적으로 분포되어진 많은 동물수집을 취미생활로 640에이커(1Section, 1에이커=3,000평) 땅을 확보하여 인간식생활 개선을 위주로 연구를 거듭하게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초과되는 양보다 질적인 맛의 향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상류생활에 발맞추어 미각적 취향뿐만 아니라 상류사회가 찾고있는 육구충족을 걸맞게 만족시킬 수 있는 질과 증가되는 취미생활의 선호에 따라 조류, 각종 닭종류, 꿩류, 메추리류, 칠면조류, 토끼과 및 많은 종류의 동물을 자연 방목하면서 연구를 거듭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영농부업으로 시작하여 기업으로 성장한 많은 농촌이웃들의 변모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들은 유망품종개발을 위해 전문적으로 생산했을 때의 경제성 및 특수한 맛을 가질 수 있는 품종개발, 우선적 순도, 뿐만 아니라 특수작행에 맞는 사육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선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이한 육질 및 토속적인 육향을 찾아내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방목사육법으로 사료의 기초인 알팔파 혹은 프로소 같은 목초를 대량재배하여 메뚜기나 귀뚜라미 같은 곤충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소에 따라 작은 인공 연

못을 만들어 개구리가 서식토록 하여 사료의 절약을 근본으로 사육했을때, 본질적인 육질을 찾는데 첩경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다음해에는 다른 장소로 옮겨 같은 방법으로 사육했을 때, 계분으로 인한 땅의 질은 사료공급원인 알팔파 및 프로소 목초를 수확하여 비축할 수 있었다.

또한 목축 및 가금류의 육질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부담되어지는 사료절감을 위해 미국에서는 많은 농가에서 목초재배가 성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육질과 육향을 찾기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곤충류이다.

손쉽게 많은 곤충을 채집할 수 있는 방법은 광전광 장치로된 "특수 유인등"을 사용하여 곤충류중에 메뚜기, 귀뚜라미, 잠자리, 파리, 모기, 나비 및 가금류가 좋아하는 곤충을 채집하여 끌라주면 더욱 효과적인 사육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특수 유인등은 각지역의 양어장을 비롯, 농촌에서 곤충류로 작물 피해를 입는 지역이면 필요한 것으로 본다. 특히 치어를 생산하는 양어장이나 육류낚시터에 사용했을 경우 많은 사료에 의존치 않고 고급 지방의 곤충류로 육질과 맛의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끝으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와의 비교되는 점을 열거하고 싶으나 정확한 사리판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독자의 조언과 여러분야에 걸쳐 연구할 수 있는 희망을 기대한다.

나라가 잘 살아야, 내 혈육을 이은 자손이 어디에서나 살 수 있기에 애국하는 마음 앞서 육안으로 보고 느낀 바를 방랑생활을 마친 교포입장에서 쓰게 됐다. **양기**